

##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on Impulsiveness and School Adjustment

박완석\*·김창석\*\*†

Wan-Seok Park and Chang Suk Kim†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전공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와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집단과 잠재집단의 충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이나 잠재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충동성 수준이 커지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인터넷중독,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 충동성, 학교적응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impulsiveness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 no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impulsiveness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 suggested that there was the difference of impulsivenes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the impulsiveness level of addiction and addiction potential groups were the highest. And, the school adjustment level of the addiction group was lower than the non-addiction and addiction potential group's. The mo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addictive, the more their impulsiveness level are higher and their school adjustment level are lower.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Impulsiveness, School Adjustment

## 1. 서 론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다양한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제공할 수 없으며, 불건전한 내용의 유포, 지나친 흥미와 오락 위주의 이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점도 야기한다. 특히,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인터넷 중독이다. Goldberg[1]는 인터넷 중독이란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및 이로 인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이 포기되는 상태가 1년 안에 발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인

터넷의 과다사용과 함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에 집착하고, 그로 인해 학업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의 '2007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5,500명 중 인터넷 고위험사용자군은 1.7%,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7.4%, 일반사용자군은 90.8%로 나타나 약 10명중 한 명이 인터넷 위험사용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고위험자군은 청소년이 2.3%이고, 성인이 1.4%로 청소년이 성인의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성인의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의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비해서 컴퓨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지친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고, 놀이공간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청소년들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들은

접수일자: 2011년 12월 14일

심사(수정)일자: 2012년 4월 9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4월 12일

†교신저자

정신건강, 자살충동에 관한 연구[3, 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5],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6],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7, 8]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과 같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외부 자극 상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태도나 행동의 준거가 되는 가치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쉽게 내면화한다. 따라서 가상 세계 안에서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하거나,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의 역기능은 일반 청소년들이나 성인에게 보이는 역기능 현상보다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위험요소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단계에 놓인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성인보다 훨씬 큰 후유증을 앓게 될 위험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 후 인터넷 중독 정도가 충동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관련 연구

###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치료가 불가능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Young[9]은 인터넷 중독 진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DSM-IV(1994)의 병적 도박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Goldberg는 약물남용 장애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Young은 DSM-IV의 병적 도박의 기준을 응용하여 오랜 시간 온라인의 접속, 오프라인 시 금단 현상, 의도했던 것보다 자주 또는 오랫동안 접속,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 온라인 접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인터넷 이용으로 생활상의 문제 발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빨리 접속해지고 싶어 함의 항목들이 해당하면 중독자로 분류하였다.

Orzack은 부적절한 컴퓨터 이용은 반복적인 약물 사용(recreational drug use)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배우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하고, 도박하는 사람처럼 시간과 돈을 충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들은 다음 접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고 한다.

### 2.2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은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하는 성

향이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다. 또한, 충동적인 사람은 쉽게 결정하고 재빨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다[10].

Young은 인터넷 중독을 자기조절 장애로 보고 DSM-IV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 장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 요인은 알콜리즘 진단의 준거이기도 한데, 통제력의 상실에 상응하는 성격 특징으로 충동성을 꼽을 수 있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음주, 흡연, 약물사용과 같은, 범죄나 비행은 아니지만 즉각적이고 쉬운 쾌락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 게임과 같은 유희가 있을 때, 하고 싶은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 2.3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 학습자가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학생들의 학교 적응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11].

한편 인터넷은 인간에게 무한한 정보의 세계와 시공을 초월한 동시성, 다발성, 다양성과 편리함으로 많은 현실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Young[8]과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에서 많은 장애들을 보이고 있다[6]. 또한 어린 시절의 인터넷 중독이 성인기로 이어질 경우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

지금까지 청소년 특히, 중,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자살충동, 가족기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간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은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충동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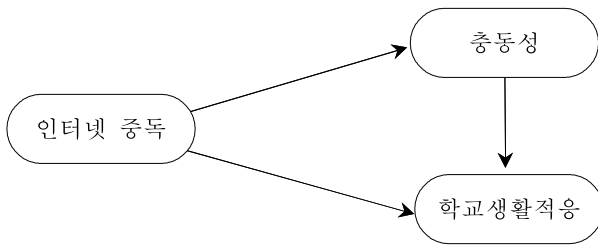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요인		문항 수	신뢰도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7	0.766
	급단	4	0.795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3	0.844
	일탈행동	2	0.786
	내성	4	0.734
충동성	인지 충동성	5	0.720
	운동 충동성	8	0.760
	무계획 충동성	6	0.702
학교생활 적응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9	0.908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8	0.899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8	0.847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7	0.85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2]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간략형)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각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로 보아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별 구분은 점수가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중독집단'으로 분류하고, 40점에서 69점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잠재집단'으로 분류하고, 39점 이하는 '비중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충동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수 [12]가 Barratt Impulsiveness Scale(BIS)을 변안한 BIS 11판 충동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3개 문항(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요인은 인지 충동성(6문항), 운동 충동성(8문항), 무계획 충동성(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일순[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도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척도

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9문항),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8문항), 학교 공부에 대한 적응(8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7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 연구대상과 자료처리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을 표집(sampling)하여 총 1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문항에 답하지 않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아 수집된 120부의 자료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120명의 응답자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 50%로 같고, 학년의 경우도 5학년과 6학년 학생의 비율이 각각 50%로 같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인 37.5%, 1시간미만이 36.7%로 전체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하루 평균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들의 약 25% 정도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연령의 청소년인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온라인 게임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 블로그, 자료실, 채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빠진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에도 중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과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15.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료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4. 연구결과

4.1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인터넷 중독 집단이 전체 3%(4명), 인터넷 중독 위험이 있는 잠재 집단은 35%(42명), 비중독 집단은 62%(74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간 충동성 평균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충동성 차이  
Table 2. The difference of impulsivenes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

충동성 하위요인	인터넷 중독수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p값)
인지 충동성	중독집단	4	3.000	0.632	4.210** (0.017)
	잠재집단	42	2.861	0.609	
	비중독집단	74	2.481	0.788	
운동 충동성	중독집단	4	3.250	0.595	7.531*** (0.001)
	잠재집단	42	2.824	0.410	
	비중독집단	74	2.415	0.749	
무계획 충동성	중독집단	4	2.958	0.724	8.210*** (0.000)
	잠재집단	42	2.567	0.506	
	비중독집단	74	2.139	0.692	

\*p<0.1, \*\*p<0.05, \*\*\*p<0.01

충동성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어 각 하위 요인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따라서 충동성의 각 하위요인인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요인의 값은 5점 만점이다. 먼저 인지 충동성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3.000, 잠재집단의 경우 2.861, 비중독 집단의 경우 2.481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서 인지 충동성의 평균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인지 충동성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4.210, p<0.05). 운동 충동성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3.250, 잠재집단의 경우 2.824, 비중독 집단의 경우 2.415로 나타났다. 즉, 중독집단이 잠재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비해 운동 충동성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운동 충동성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7.351, p<0.01). 무계획 충동성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3.000, 잠재집단의 경우 2.861, 비중독 집단의 경우 2.481로 나타났다. 즉, 중독집단이 잠재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비해 무계획 충동성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무계획 충동성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8.210, p<0.01)

4.2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간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Table 3. The difference of school adjustment level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중독집단	4	2.888	0.395	7.713*** (0.001)
	잠재집단	42	3.351	0.656	
	비중독집단	74	3.852	0.834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중독집단	4	2.843	0.562	5.542*** (0.005)
	잠재집단	42	3.628	0.636	
	비중독집단	74	3.924	0.792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중독집단	4	2.656	0.373	14.450*** (0.000)
	잠재집단	42	3.136	0.529	
	비중독집단	74	3.746	0.742	
학교생활에	중독집단	4	2.857	0.594	10.747***

대한 적응	잠재집단	42	3.401	0.601	(0.000)
	비중독집단	74	3.938	0.764	

\*p<0.1, \*\*p<0.05, \*\*\*p<0.01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어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요인의 값은 5점 만점이다. 먼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2.888, 잠재집단의 경우 3.351, 비중독 집단의 경우 3.852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서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평균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인지 충동성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7.713, p<0.01).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2.843, 잠재집단의 경우 3.628, 비중독 집단의 경우 3.924로 나타났다. 즉, 중독집단이 잠재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비해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의 정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의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5.542, p<0.01).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2.656, 잠재집단의 경우 3.136, 비중독 집단의 경우 3.746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서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의 평균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4.450, p<0.01).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경우 중독집단의 평균 점수가 2.857, 잠재집단의 경우 3.401, 비중독 집단의 경우 3.938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서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의 평균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0.747, p<0.01)

4.3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본 연구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독립변수로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impulsiveness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값 (p값)	R <sup>2</sup>	F값 (p값)
인터넷 중독	인지 충동성	0.403	0.330	3.796*** (0.000)	0.109	14.409*** (0.000)
	운동 충동성	0.524	0.470	5.779*** (0.000)	0.221	33.394*** (0.000)
	무계획	0.532	0.483	6.000*** (0.000)	0.234	35.995*** (0.000)

	충동성		(0.000)	(0.000)
--	-----	--	---------	---------

\*p<0.1, \*\*p<0.05, \*\*\*p<0.01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인지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403으로 p<0.01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인지충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인지충동성의 총 변량 중 약 10.8%를 설명하고 있다(F=14.409, p<.01). 둘째, 인터넷 중독이 운동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0.524로 p<0.01에서 정(+)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운동충동성은 높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운동충동성 총 변량 중 약 22.1%를 설명하고 있다(F=20.856, p<.001). 셋째, 인터넷 중독이 무계획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0.532로 p<0.01에서 정(+)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무계획 충동성은 높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무계획 충동성 총 변량 중 약 23.4%를 설명하고 있다(F=35.995, p<.00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무계획 충동성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아 전체 설명변량 중 23.4%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운동 충동성으로 22.1%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두 가지 충동성 요인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총 4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독립 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값 (p값)	R <sup>2</sup>	F값 (p값)
인터넷 중독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0.658	-0.496	-6.203*** (0.000)	0.246	38.475*** (0.000)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0.413	-0.330	-3.797*** (0.000)	0.109	14.415*** (0.000)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0.683	-0.564	-7.424*** (0.000)	0.318	55.117*** (0.000)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0.616	-0.492	-6.143*** (0.000)	0.242	37.741*** (0.000)

\*p<0.1, \*\*p<0.05, \*\*\*p<0.01

표 5에서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658로 p<0.01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24.6%를 설명하고 있다(F=38.475, p<.01). 둘째, 인터넷 중독이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413로 p<0.01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10.9%를 설명하고 있다

(F=14.415, p<.01). 셋째, 인터넷 중독이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683으로 p<0.01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31.8%를 설명하고 있다(F=55.117, p<.01). 넷째,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616으로 p<0.01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24.2%를 설명하고 있다(F=37.741, p<.01).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아 전체 설명변량 중 31.8%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으로 각각 24.6%, 24.2%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세 가지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총 80%의 이상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동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충동성을 독립변수로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s of impulsiveness on school adjustment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t값 (p값)	R <sup>2</sup>	F값 (p값)
인지충동성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0.211	-1.936* (0.055)	0.261	13.635*** (0.000)
운동충동성		-0.257	-1.961* (0.052)		
무계획충동성		-0.231	-1.797* (0.075)		
인지충동성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0.393	-3.979*** (0.000)	0.317	17.942*** (0.000)
운동충동성		0.025	0.209 (0.835)		
무계획충동성		-0.313	-2.683*** (0.008)		
인지충동성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0.233	-2.914*** (0.004)	0.521	42.110*** (0.000)
운동충동성		-0.486	-5.041*** (0.000)		
무계획충동성		-0.167	-1.763* (0.081)		
인지충동성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0.178	-1.835* (0.069)	0.337	19.632*** (0.000)
운동충동성		-0.390	-3.330*** (0.001)		
무계획충동성		-0.171	-1.487 (0.140)		

\*p<0.1, \*\*p<0.05, \*\*\*p<0.01

초등학생의 충동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는 인지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211로  $p < 0.1$ 이고, 운동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257로  $p < 0.1$ 이며, 무계획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231로  $p < 0.1$ 이다. 따라서 충동성 세 가지 요인 모두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충동성 수준이 커질수록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충동성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26.1%를 설명하고 있다( $F=13.635, p < 0.01$ ). 둘째,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는 인지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393으로  $p < 0.01$ 이고, 무계획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313으로  $p < 0.01$ 로 나타나 인지 충동성과 무계획 충동성이 학교 공부에 대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충동성 수준이 커질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충동성은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31.7%를 설명하고 있다( $F=17.942, p < 0.01$ ). 셋째,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는 인지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233으로  $p < 0.01$ 이고, 운동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486으로  $p < 0.01$ 이며, 무계획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167로  $p < 0.1$ 이다. 따라서 충동성 세 가지 요인 모두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충동성 수준이 커질수록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충동성은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52.1%를 설명하고 있다( $F=42.110, p < 0.01$ ). 넷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는 인지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178로  $p < 0.01$ 이고, 운동 충동성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390으로  $p < 0.01$ 로 나타나 인지 충동성과 운동 충동성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충동성 수준이 커질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충동성은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의 총 변량 중 약 33.7%를 설명하고 있다( $F=19.632, p < 0.01$ ).

## 5.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120명(남학생 60명, 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와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집단과 잠재집단의 충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의 충동성이 높았고, 이는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중독집단이나 잠재집단보다 중독집단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쉽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잉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속한 학교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충동성 수준이 커지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중독적 사용이 충동적인 성향으로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 고 문 헌

- [1]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cmhc.com/mlists/research>.
-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 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
- [3] 이준호, 이청복, 정원재, 이후연, 박은철, 함명일(2004),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련성," *한국유행병학회지*, vol. 26, no. 2, p. 54-61.
- [4] Mathy, R. and Cooper, A.(2003),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Internet Use in a Nonclinical Sample: Suicidality, Behavioural Problems, and Treatment Histori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 40, p. 125-135.
- [5] 김광웅, 유미숙, 이지향(2004),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 대인관계 성향과 대면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논문지*, vol. 25, no. 2, p. 109-120.
- [6]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미정(2003),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Davis, R. A.(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7, p. 187-195.
- [9]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10] Barratt, E., Patton, J. H., Olsson, G., and Zuker, G.(1981), "Impulsivity and Paced Tapping," *Journal of Motor Behavior*, 13, 286-300.
- [11] 엄순명(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현수(1992).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13] 김일순(2007),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저 자 소 개



**박완석(Wan Seok Park)**

2007년 :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사  
2011년 :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전공  
석사  
1999년 ~ 현재 : 대전삼육초등학교 컴퓨터  
전임강사

관심분야 : 컴퓨터교육, XML  
Phone : 010-8229-6647  
E-mail : com36@kongju.ac.kr



**김창석(Chang Suk Kim)**

1983년 :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사  
1990년 : 경북대 전자공학과 석사  
1994년 : 경북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1983년 ~ 1994년 : ETRI 선임연구원  
2000년 ~ 2001년 :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전산학과  
박사후연수

1998년 ~ 현재 :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지능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XML  
Phone : 041-850-8822  
E-mail : csk@kongju.ac.kr